

20세기 초 잡지 《少年》에 나타난 소년의 정체성*

권 희 영**

I. 머리말	V. 맺음말
II. 20세기 초 소년 등장 의미	<참고문헌>
III. 《少年》의 발간목적과 이념	<국문요약>
IV. 20세기 초 소년의 정체성	

I. 머리말

20세기 초에 동아시아의 사상계에서는 세대구분을 중심으로 하는 감각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이었다. 동아시아 사회가 다소간에 유교적 전통에 따라 長幼有序를 윤리적 덕목으로 간주하던 점을 감안해본다면 이는 놀라운만한 감각적 변화였다. 이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우리는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변화의 과정과 의미를 추적해 보려고 한다.

중세에서 근대로 사회가 변화하면서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게 된 것을 독특한 감각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의 선도적 연구자인 아리에스(Ph. Ariès)가 이미 교과서가 된 그의 저서 『구체제하의 아동과 가족생활』에서 잘 보여주었다. 아리에스가 논한 주요한 결론 중의 하나는 근대의 가족은 양친과 아

이들로 구성된 고독한 연대인 가족을 사회와 맞서게 하면서 모든 힘을 아이들을 성장시키는데 기울였다는 것이다.¹⁾ 그 결과 아동은 이전보다 더욱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고 사회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독자적인 세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리에스의 연구는 한국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욕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연구자들은 한국의 20세기 초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시기 근대적 지식 확산과 계몽을 목표로 하여 많은 잡지들이 새로이 창간되는데, 이들 잡지들이 한결같이 애국과 계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소년, 청년, 어린이 등의 용어를 시대적 유행어로 주조해 내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는 『少年韓半島』²⁾같이 소년을 잡지 제호로 내걸은 것도 있으며 그 이후에도 이른바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확산되었다.

한국에서 20세기 초는 사상의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사고가 돌출하는 시기였다. 서양과 일본의 근대사상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익숙했던 전통적인 사고에 균열이 발생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범주를 통하여 세계를 이해하려는 분위기가 강하였다. 예를 들어 국민이나 민족 같은 것이 새로운 범주로서 등장하여 사회 담론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궤도상에서 20세기 초 새롭게 등장한 주제를 하나 들자면 새로운 세대의식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에 입각한 소년의 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본고는 20세기 초 새롭게 세대감각을 가지고 등장하는 소년의 역사적 의미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남선에 의하여 잡지의 표제로 사용된 소년이라는 용어가 아동, 청년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근대적 변혁과 감각의 혁신에 관계되는 개념이었음을 밝힌다.

이 때 소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새로운 세대의 인식일까? 사회·정치적 운동의 일환으로 등장한 집단적 개념인가? 어떠한 의미에서이건 간에 소년이란 용어는 근대에 등장하게 된 여러 용어들 중의 단지 하나가 아니었다. 그것은 등장

1) Ph. Ariès, *L'enfant et la vie familiale sous l'Ancien régime*, Paris: Edition du Seuil, 1973, p. 306.

2) 1906년 11월에 창간되어 1907년 4월에 통권 6호로 중단되기까지 양재건이 발행하고 이해조가 편집한 이 잡지는 새로운 감각을 가지게 된 소년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받아들여 주조하고 이를 잡지의 제목으로 삼으면서 유행시켰다. 「소년한반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이미 잡지 제목을 통하여 소년이 다가올 신시대를 알리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7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개인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물임.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한국근대사 전공(kwonhy@aks.ac.kr).

그 자체로 근대성의 출현을 알리는 새로운 용어였다. 나아가서 그것은 20세기 초 한국의 상황을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용어이기도 하였다. 바로 그러한 용어를 주도하고 유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남선이 1908년 만18세의 나이로 창간하고, 그 뒤 1911년까지 발행하게 되는 잡지 《少年》인 것이다.³⁾

본고는 현대적으로 정리된 세대개념에 입각하기 보다는 최남선 당시의 시대적 개념에 충실하게 “소년”의 용례를 분석하고, 그것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분석하며, 나아가서 그 시대의 소년이 가진 정체성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보려한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최남선이 1908년에 창간한 잡지 《少年》은 몇 가지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끈다. 우선 그는 애국과 계몽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일본유학을 경험하고 그 경험 위에서 강력한 흡인력으로 근대적 서양문명을 흡수한다. 그렇지만 그 역시 한국의 유교적 소양이라는 바탕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 양 요소가 어떠한 모양으로 융합되어서 소년이라는 새로운 감각이 부과된 용어를 주도하였는지 관심거리이다. 다음으로 소년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주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선과 갈등인데, 이 역시 근대적 용어와 감각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일단 용어는 탄생되면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가진다. 소년이라는 용어로 새로이 주도된 세대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 역시 근대성의 새로운 탄생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을만한 것이다.

II. 20세기 초 소년 등장의 의미

20세기 초 한국에서 소년이라는 것은 대단히 애매한 개념이었다.⁴⁾ 당시의 유럽

- 3) 출판 경위에 대해서는 전영표, 「육당 최남선의 출판행위와 《소년》지 연구, 『출판잡지연구』, 12권 1호(출판문화학회, 2004)가 참고 된다. 이 잡지의 영향력은 당대에는 크지 못하였다. 창간호는 불과 6명의 독자를 얻고, 둘째 달에 14명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서 30~40명 정도, 1년이 지나서 200명 정도의 독자가 생겨났을 뿐이다. 최남선 자신은 이러한 성과를 자괴하여 “원통”하다 하였으나 미미하게 시작하였으나 일정한 정도로 성공하였다 할 것이다(《少年》, 第二年 第十卷, 5-7쪽). 잡지는 거의 최남선 혼자 집필하는 형국이었으나 가인 홍군, 고주 이군이 《少年》 第參年 第二卷부터 협력 기고하기 시작하였다(《少年》, 第參年 第二卷, 92쪽). 고주는 이광수, 가인은 홍명희를 말한다.
- 4) 20세기 초의 소년 개념이 모호하다고 하더라도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음은 주목을 요한다. 유럽에서 시작되어 일본을 거쳐 중국과 한국에서도 소년이 긍정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과는 달리 조혼이 유행이었던 한국에서는 소년은 아동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그렇다고 청소년을 지칭하는 개념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개념은 시대적인 전환을 감당해야하는 과제(국민의 형성이라는 점에서)를 짊어진 세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나타내는 개념(젊은 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 등장한다는 의미에서)으로 창안되었다. 이렇게 하여 창안된 소년의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당대 지식인들의 자의식 점검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최남선에 의하여 발간된 잡지 《少年》을 분석하여 소년의 자의식을 추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0세기 초 새로운 세대의식을 가지고 등장한 이 잡지의 담론들을 분석하면 소년의 자기정체성, 타자가 바라보는 이미지, 사회적 환경의 문제가 검토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남선은 무엇 때문에 잡지 《少年》을 발행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하여 그는 몇 가지 동기를 스스로 밝히고 있다. 첫째는 저널리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다. 그는 이미 12세 때에 신문에 첫 투고를 한 일이 있으며 15세에는 그의 투고가 처음으로 신문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이것이 그에게 아주 큰 기쁨을 주어서 이것으로 그는 “冕旒冠 아니쓴 帝王”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기까지 하였다.⁵⁾ 또 다른 동기로 그는 일본에 유학하면서 일본의 신문명을 접하고 이를 한국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⁶⁾ 즉 국민적 애국심의 발로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동경유학 시절부터 친구와 더불어 “사상계건설”을 위한 방법으로 잡지를 내자고 하였다.⁷⁾ 그것은 조국의 “昏夜의 深夢”을 깨치고자 한

양계초는 「少年中國說」(《清議報》, 1900. 2. 10)에서 이를 잘 표현하였다. 老大帝國이라는 일본과 유럽에서 부르는 호칭을 거부하고 少年中國이라는 호칭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후 이 논설은 신문화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20세기 초 소년이라는 용어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중국에 유행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동아시아에서 소년이라는 말은 문명과 진보를 나타내는 아이콘이 된 것이다(梅家玲, 「發現少年, 想像中國: 梁啟超 <少年中國說>의現代性. 啓蒙論述與國族想像」, 『漢學研究』, 第19卷 第1期(2001. 6), 249-274쪽.

- 5) 「《少年》의 既往과 未來」, 《少年》, 第參年 第六卷(1910), 12-13쪽.
- 6) 《少年》, 第參年 第六卷, 16쪽. 일본에서는 청일 전쟁 중 1895년 이미 소년을 표제로 건 잡지 『少年世界』가 창간되었다. 원종찬, 「한일아동문학의 기원과 성격 비교」, 『아동문학과 비평정신』(창작과 비평사, 2001), 54-55쪽; 소래섭, 「《少年》誌에 나타난 ‘소년’의 의미와 ‘아동’의 발견」, 『한국학보』, 28권 4호(일지사, 2002), 116쪽에서 재인용.
- 7) 일본에서는 1887년(明治20년) 잡지 《國民の友》가 토쿠토미 소호(徳富小峰, 1863~1957)에 의하여 창간된 이래 잡지발간이 유행이 되었다. 《國民の友》는 소년에 의한 신일본건설을 표방하였으

것이였다.8) 그러므로 발간의 목적은 “新大韓의 少年으로…무거운 짐을 감당케하도록 敎導”하자는 것이며 그래서 “국민정신의 통일을 요구하난 때에…청년들에게 우리나라의 대정신을 주난 위로 이러한 잡지가 실노 막대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9)

이 같은 글을 통하여 최남선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식과 자부심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다. 비록 아직 약관도 되지 않은 청년이었지만 그는 이미 대한제국의 사상계에 두각을 나타낸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같은 청년의 자부심과 사명식은 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그와 함께 잡지에 협력하게 된 청년 이광수 역시 같은 종류의 선각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今日我韓靑年の 境遇」라는 논설을 통하여 그 같은 문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아주 단호한 문투로 청년에 대하여 논한다. 대개 청년시대라는 것은 수양시대이지만 대한의 청년은 父老의 지도를 받을 수가 없어서 “하여노는 것 업난 空漠한 곳에 各種을 創造함이 職分”이라 하였다.10) 그뿐 아니라 교도를 받을 만한 학교도 없다고 하여 대한의 청년은 “自己가 自己를 敎養하여써 新大韓建設者될 第一世新大韓國民이 될만한 資格을 養成치 안이치 못할지라”고 하였다.11) 이같은 의식 하에 그는 대한청년을 “自修自養”해야 한다고 하였다.12) 이광수가 이 글을 썼을 당시 그는 18세에 불과하였다. 청년으로서의 그가 기성세대에 대하여 얼마나 불신하고

며 뒤를 이어 그와 취지를 같이하는 다른 잡지, 즉 『少年圖』(1888년 창간) 역시 마찬가지로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 1880년 이래 YMCA의 young men의 역어를 가지고 若年, 壯年, 少年 등 교민이 있었으나 1887년 德富猪一郎이 『新日本之靑年』(《國民の友》, 1887년 7월-9월)이라는 글에서 청년이라는 역어를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 유행되었다고 한다(전성곤, 「국민의 벗」과 『소년』지에 나타난 <문화론>에 관한 고찰, 『인문연구』, 50집(영남대인문과학연구소, 2006), 116~117쪽). 역시 잡지의 발간에 있어서 소년이란 용어의 사용이 당시 일본 잡지계로부터의 직접적 자극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최남선은 일본의 평민주의자 저널리스트 토쿠토미 소호가 창간한 《國民の友》를 모방하여 만든 리얼전쟁시기의 각종 잡지 《少年》(時事新報社), 《少年界》(金堂堂), 《成功의少年》(博報堂), 《少年少女智識書報》(近時書報社)와 같은 것들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한다. 최재목, 「최남선 《少年》誌의 ‘新大韓의 少年’ 기획에 대하여」, 『日本文化研究』, 18집(2006), 261쪽.

8) 《少年》, 第參年 第六卷, 17쪽.

9) 《少年》, 第參年 第六卷, 18-19쪽.

10) 《少年》, 第參年 第六卷, 27쪽.

11) 《少年》, 第參年 第六卷, 28쪽.

12) 《少年》, 第參年 第六卷, 30쪽.

있으며, 얼마나 비판적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즉 소년의 등장, 청년의 등장은 세대의 반란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정작 당시에 새로 등장하게 된 용어로서 소년이란 어느 세대를 의미하는 것인가? 우선 소년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노년의 시대를 부정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의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13) 장유유서와 관습의 존중, 구학문, 쇠퇴해가는 대한제국에 대한 쇠신의 욕망인 것이다. 자유와 근대문명, 신학문, 자주독립적 신대한의 건설이 그 욕망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구질서를 전복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당시에 지식인들이 주창하던 국민은 구질서의 전복을 통하여 새로운 감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해야 하였다. 그렇기에 이같은 변혁의 주역으로 소년이라는 용어가 선택된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한국만의 독창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유럽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중국과 한국에서도 출현하게 되는 것으로 일종의 보편적인 시대정신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처음에 소년이라는 용어는 세대를 지칭하는 기호라기보다는 쇠신의 역동성을 표현하는 기호였다. 현실이라기보다는 이상을 나타내는 기호였고 현재보다는 미래에 존재의 근거를 두는 기호였다. 예컨대 ‘소년남자가’는 “무쇠 骨格 둘 筋肉少年 男子아”라는 표현을 쓰며 ‘少年冒險猛進歌’는 “二千萬 同胞 우리 少年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14) 그러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대상을 점차 구체화해가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그렇지만 우선 당시 일반적인 지식인들의 수준에서 세대구분이 어떠한 것이었던가? 1889년에 저술된 유길준의 『西遊見聞』에서는 세대를 孩嬰·長老로 크게 구분하였다. 해영을 또한 童穉로도 호칭하였다. 해영을 남녀로 구분할 때는 해남, 해녀로 호칭하였다. 교육에 대하여는 10세전 해영의 교육은 어머니에 있고, 10세 이후에는 아버지에게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해영이 10세 전후의 0~20세까지의 광범위한 연령층을 다 같이 포괄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15) 그 외에도 소년이

13) 조은숙, 「근대계몽담론과 ‘소년’의 표상」, 『어문논집』, 46집(민족어문학회, 2002)에서 소년이라는 용어의 용례를 분석하여 민족의 희망이 되어버린 이 용어가 특정한 세대를 지칭하기 보다는 노소의 대립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14) 「少年男子歌」, 《皇城新聞》, 1909. 3. 21. ‘少年冒險猛進歌’는 김정, 『한국소년운동사연구』, 성신여대박사학위논문(1992), 16-17쪽에서 재인용.

15) 유길준, 『西遊見聞』, 『兪吉潛全叢(1)』(일조각, 1971), 325쪽.

란 용어의 발견 이전에 대략 20세 미만의 연령층에 대하여는 보통 동몽·아해·아동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다. 공식적인 문서에서도 이 시기에는 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895년 7월 19일의 칙령145호로 ‘小學校令’이 공포되는데 제16조에 “兒童의 滿七歲로 滿十五歲까지 八個年으로 學齡을 定함”이라 하여¹⁶⁾ 후에 소년으로 부를 대상을 아동이라는 공식용어로 사용했음을 보여 주었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1896년 2월 학부에서 펴낸 『新訂尋常小學』에서 “兒孩”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¹⁸⁾ 일반적으로는 ‘아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소년이란 용어는 일본에서는 1887년 이래 특히 러일전쟁 이후에 저널리즘에서 그 사용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1906년 『少年韓半島』가 창간된 것은 이미 언급한 바지만 그 이후 소년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일반 사회에서 더욱 확산되어 나갔다. 이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것이 『大韓自強會月報』(第三號, 1907. 9)에 게재된 양계초의 「教育政策私議」란 글이다(장지연이 역술). 이 글에서 양계초는 교육정책의 필요상 교육시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22~25세	대학교기 성인기
14~21세	중학교기 소년기
6~13세	소학교기 아동기
5세 이하	가정교육기 유치원기 유년기 ¹⁹⁾

여기에서 보면 유길준이 해명으로 통칭하던 아동이 유년·아동·소년의 세 시기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그러나 양계초의 이 세대구분이 그대로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 1907년 『太極學報』 16호(1907. 12)에 이동초의 「少年國民의養成」에서 “國中幼年者는 卽所謂少年國民”이라 하였다.²⁰⁾ 결국 유년·아동·소년 그리고 청년의 경계선은 아직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남선이 의미하

16) 한기인·이계학·이길상(편), 『韓國教育史料集成: 개화기편 IV』(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14쪽.
 17) 1909년 2월11일 統監府令第三號로 ‘小學校規則’이 제정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아동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였다. 송병기(편), 『統監府法令資料集:中』(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3), 520쪽.
 18) 「序」 및 「第十四課 金志學」.
 19) 『大韓自強會月報』, 第三號(1907. 9), 17쪽. 여기에서 인용문은 필자가 요약한 것임.
 20) 『太極學報』, 第16號(1907. 12), 7쪽.

는 소년은 어느 세대를 지칭하는 것인가? 그는 이에 대하여 “少年을 訓導하난 父兄”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²¹⁾ 이러한 표현에 의할 때 부형은 40대 이상으로 간주되므로 대략 10~20대에 걸치는 세대를 지칭하여 소년이라 표현한 듯하다. 이를 좀더 상세히 살펴본다면 그는 “一生의 計는 幼少에 잇나니”라고 하였으며,²²⁾ 또한 “七歲小兒 한니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한편으로는 유년/소년을 구분하고 小兒를 유년으로 보아 少年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³⁾ 또 「少年漢文教室」에서 “老人(늙은,이) 少年(젊은,이)”으로 풀이하고 있으며,²⁴⁾ 「少年時言」에서는 “늙은이는 늙은이 담고…어린이는…어린이 다울지어다. 더욱 少年은…少年다울지어다”라고 하고 있다. 소년을 어린이와 구별하는 관념인 것이다.²⁵⁾

최남선의 세대관을 엿볼 수 있는 글의 하나가 “甲童伊와 乙男伊의 相從”인데 둘은 모두 대성학교 생도이다. 갑동이는 중등과로 15세이며 을남이는 초등과로 9세이다.²⁶⁾ 그런데 을남이가 갑동이한테 이리 말한다. “갑동아 애 갑동아 이리오난 兒孩 갑동이 아니냐.”²⁷⁾ 즉 둘은 6세 차이가 나는 데 말을 놓고 지내는 것이다. 그리고 15세 갑동이를 “兒孩”라고 호칭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글에서는 “十四五歲少年”라고 하여²⁸⁾ 이 연령층은 세대라는 점에서 보면 소년이지만 호칭으로는 아해로 불리워짐을 알 수 있다. 즉 소년은 구어체 호칭이 아니라 문어체로 표현된 세대이며²⁹⁾ 이것은 역시 문어 상으로 유년 혹은 소아와 구별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소년은 한편으로는 그 아래의 세대인 유년·소아와 구별되는 세대이지만 그 위로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최남선은 몽고메리의 영문시를 번역하면서 youth를 청년으로 역하였다.³⁰⁾ 이는 소년과 청년을 구분하는 의식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21) 「간행취지」, 《少年》, 第一年 第一卷.

22) 「少年時言」, 《少年》, 第一年 第一卷, 5쪽.

23) 「少年時言」, 《少年》, 第一年 第一卷, 8-9쪽.

24) 《少年》, 第二年 第肆卷, 44쪽.

25) 《少年》, 第二年 第十卷, 15쪽. 한편 어린이는 19세기 말 幼의 훈으로 알려져있다. 소래집, 앞의 논문, 107쪽.

26) 「甲童伊와 乙男伊의 相從(一)」, 《少年》, 第一年 第一卷, 12쪽.

27) 《少年》, 第一年 第一卷, 14쪽.

28) 「海의 美觀은 웃더한가」, 《少年》, 第一年 第一卷, 35쪽.

29) 《少年》이 한국어 통사구조를 충실히 따르는 국한문체를 사용하였고(정선태, 「번역과 근대 소설 문체의 발견」, 『대동문화연구』, 48집(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통용되는 한국어를 표현하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에 따라 구어/문어를 구분하였을 것이다.

또 다른 사례에서 보면 청년학우회 「設立委員會議定件」에서 “통상회원의 자격을 만 17세 이상 그리고 심상중학 정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로 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³¹⁾ 역시 청년과 소년을 구분하는 관념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로 보아 소년의 윗 세대를 청년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를 대략 17세 이상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남선이 염두에 두었던 소년은 오늘날의 청소년(teenager)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범주를 청소년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청소년의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이광수의 글에 “오늘날 우리나라 청년까지도…이전사람의 고루를 밟으라고 보통교육은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청년도 오히려 구시대의 여운이 잇난 자니 이런 청년이야말로…건강하고 가장 새로운 우리들 소년이 잇거니”³²⁾로 보아 이광수 역시 청년을 소년의 바로 윗 세대로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청년학우회가 조직되자 최남선이 「青年學友會의 主旨」라는 논설을 쓰면서 “이 必要의 資格을 가진 者가 누구도 過去의 꿈을 追懷하고 生時에 잠꼬대하던 老人도 아닐지오, 天動별거승이로 辱에 누어서도 辱도 몰고 苦를 가지 고도 苦도 깨닫지못하던 小兒도 아닐지라…남도 이의 許諾하고 나도 미리 알아차린 우리 青年이라”이라 하여³³⁾ 소년 대신 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을 보게 된다.

이상과 같은 용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결국 최남선은 유년·소아/소년을 구분하여 폭넓게 사용하면서 아해라는 호칭은 이들 사이에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렇더라도 이들은 청년과는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후에 어린이로 지칭되는 세대와는 구별되는 차원에서 소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 왜 소년이 문어로서 등장되었을까? 왜 구어체와는 구별되면서도 문어체에 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문제이다.³⁴⁾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년에 실린 기사들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30) 《少年》, 第二年 第參卷, 2쪽.

31) 《少年》, 第二年 第八卷, 16쪽.

32) 《少年》, 第參年 第八卷, 29쪽.

33) 《少年》, 第參年 第五卷, 73쪽.

34) 이에 대하여 잡지 《少年》이 이전의 낭독에서부터 목록으로 문화가 변화하는 가운데 “목록형 자국어 글쓰기”를 시도한 것이라는 연구는 흥미롭다. 신지연, 「『소년』의 문체연구」, 『민족문화연구』, 42집(고대민족문화연구소, 2005), 177-213쪽.

III. 《少年》의 발간목적과 이념

이미 언급하였듯 잡지 발간의 목적은 “국민정신의 통일”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소년인가? 부모의 세대에게 더 이상 기댈 것이 없기 때문이다. 왜 소년에게는 기댈 것이 있다고 보는가? 소년의 마음은 “白紙”같기 때문이다.³⁵⁾ 즉 소년의 마음에 국민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실로 최남선에게 소년은 “오래 우리가 經綸하여야오던 少年을 위하난 雜誌…”³⁶⁾였다. 잡지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국민적 기상으로 소년을 계몽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 고유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가에 필요한 국민으로 아동의 정신을 계몽하는데 있었다는 것은 다음의 글로 분명히 드러난다. 최남선의 목적은 아동잡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소년잡지를 만드는 것이었다.³⁷⁾

本誌는 어뎃가지던디 우리 少年에게 剛健하고 堅確하고 窮通한 人物되기를 바라난 故로 決코 軟弱懶怠依恃虛偽의 마음을 刺激할듯한 文字는 조금도 내 이지아니할터이오…硬軟한 것을 主張하야 兒童의 好奇心과 歡意를 迎合하고 온갖 懸賞과 抽籤을 行하야 白紙갓흔 兒心에 虛慾과 僥倖心을 印케하난 것은 外國雜誌의 通弊 | 라³⁸⁾

잡지 《少年》의 창간호 표지에 실린 간략한 발간취지문은 최남선이 가진 의도를 집약적으로 잘 요약하여 준다.

今에 我帝國은 우리 少年의 智力을 資하야 我國歷史에 大光彩를 添하고 世界文化에 大貢獻을 爲코되하나니 그 任은 重하고 그 責은 大한디라 本誌는 此責任을 克當할만한 活動의 進取的發明의 大國民을 養成하기 爲하야 出來한 明星이라 新大韓의 少年은 須臾라도 可離티못할디라.³⁹⁾

35) 《少年》, 第一年 第一卷, 83쪽.

36) 『編輯室通寄』, 《少年》, 第一年 第一卷, 82쪽.

37) 최남선의 소년 개념을 볼 때 이것은 1920년대에 들어가서 나타나게 되는 방정환류의 “동심주의” 인식과는 또한 구별되는 것이다. 박지영, 「방정환의 ‘천사동심주의’의 본질」, 『대동문화연구』, 51집(2005).

38) 『編輯室通寄』, 《少年》, 第一年 第一卷, 83쪽.

위의 취지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 소년은 국민이 되어야 한다. 그것도 새로운 시대가 목표로 하는 “活動的進取的發明的” 국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20세기 초 아시아를 유혹하였던 개화문명의 자질을 갖춘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소년은 국민양성을 목표로 훈련되는 세대일 것이다.⁴⁰⁾ 그런데 최남선은 잡지의 간행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 大韓으로 하야곰 少年의 나라로 하라 그리하라 하면 能히 이 責任을 堪當하도록 그를 矯導하여라

《少年》이 국민정신을 고취한다는 목표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으나 아직 청년이었던 최남선에게 그를 위한 뚜렷한 사상체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그가 보고 들은 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다양한 사상들을 취합하면서 그것들 중에 좋은 것들을 가려 그것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은 일종의 모색으로 나타났다. 각종 영웅 위인전의 소개는 바로 그를 위함이었고 각종 위대한 역사의 페이지를 소개한 것 역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창간호에서부터 「페터大帝傳」이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제2권에는 「나폴레옹大帝傳」이 연재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미국의 역사 역시 영웅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아메리카는 이리하고야 독립하얏소」에서 그 독립의 역사를 아낌없이 칭송한다.

그들은 蔽一言하고 我란 것은 업시알고 私란 것은 이더바려서 公共한 自由大同의 幸福을 더하기 爲하야 吶息니기를 辭티 아니한 故로 終乃 필나멜피야 府中에 自由警鐘이 有光하고 杼杼 浦頭에 自由神像이 生輝하게 되얏더라⁴¹⁾

국민 양성이 목적인 바,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최남선은 소년에게 희망을 고취시키는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은 소년의功名심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유교윤리에서는 전통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가치를 궁

39) 《少年》, 第一年 第一卷, 표지.

40) 「간행취지」, 《少年》, 第一年 第一卷 그러다가 《少年》, 第二年 第六卷에 취지문의 변화가 나타나서 “向上前進은 新大韓少年의 人文開發에 從事하난 精神이오 勞動力作은 新大韓少年의 天命服從에 努力하난 道理니라” 하였다.

41) 《少年》, 第一年 第二卷, 75쪽.

정적으로 전환시키려 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名利였다. 그는 “倫理的 名利”라는 표현으로⁴²⁾ 명리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이를 소년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삼았다.

윤리적 명리의 요지는 명리를 추구하되 ① 자기의 分數대로 취하는 것이며, ② 努力을 통하여 명리를 획득하고, ③ 일신의 명리가 아닌 일 자체를 위하여 매진하라는 것이다. 그를 통하여 업적을 이룬 자가 위인이며 그리하여 “위인과 및 위업의 정수는 노력”이라 하였다.⁴³⁾

그의 새로운 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에 그치지 않는다. 우선은 조선시대를 지배하였던 성리학이 문제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대만을 비참하게 만든 기본 정신이 문제인 것이다. 隆熙 2년 여름 최남선은 동래로 여행하기로 작정하여 기차여행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그가 관찰한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기록하였다.⁴⁴⁾ 기차 안에서의 일본인들의 무식하면서도 잘난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마음에 담아둔 인상을 몇 가지로 정리한다. ① 오래 기다리던 비가 와서 모를 내게 되어 기뻐했다는 것, ② 그가 보는 모든 산이 발가벗은 민둥산인데 사태가 나서 여기저기 지독한 모습을 보게 된 것, ③ 남들은 어렵게 농사일하느라 노동역작인데 젊은이들이 놀면서 담배나 피우고 있는 모습, ④ 인민의 살림살이에 대해 말하자면 “그집을 보아라 도야지우리오 그 먹난 것을 보아라 개밥이로다”라고 하였다.⁴⁵⁾ 이 부분에서 최남선은 지주층 내지 지배층에 대하여 강한 저항감을 보이는데 이들에 대하여 “낮잠이나 자고 담배나 피우면서 農軍의 피와 땀을 빠라먹고 사난 京鄕間遊食하난 寄生蟲”이라 하였다. 그리고 “一般人民이 일만큼 이러한 地位에 自安하난 어리석음과 所謂 志士니 愛國者니 하난 者가 이러한 實際問題는 등한히 하고 공연히 떠드난 거짓(虛僞)을 웃지하면 깨칠꼬하다”며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⁴⁶⁾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의 기성 지도층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가 경험한 일본의 현실과의 대비되는 여행풍경은 더욱 그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결국 그로 하여금 유교적 윤리와는 결별해야 한다는 생각을

42) 《少年》, 第參年 第二卷, 17쪽.

43) 「소년시언」, 《少年》, 第參年 第二卷, 19-22쪽.

44) 「嶠南鴻瓜」, 《少年》, 第二年 第八卷, 45-66쪽.

45) 《少年》, 第二年 第八卷, 64-65쪽.

46) 《少年》, 第二年 第八卷, 65-66쪽.

가지게 하였다. 「少年時言」란에 쓴 「國民思行的 標準」이라는 글에서 그는 유교가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표준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유교윤리는 고상하지도 않고 숭엄하지도 않다. 그 대신에 그는 단군 이래 역대성철의 “일관적 대정신”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그 대정신으로 두 가지를 든다. 첫째는 “正義의 護持者”이고 둘째는 “至善의 努力者”이다.⁴⁷⁾ 그러면서 그는 이순신의 일생을 사례로 든다.⁴⁸⁾ 이 대정신은 단군의 정신과 포부이기도 하며 이것이야말로 “남이 가지지 못한 至高至大한, 至剛至正한 標準”이라는 것이다.⁴⁹⁾ 이 정신의 구체적 덕목으로 純潔, 光明, 剛健, 和樂, 眞實, 誠忠, 勤勉, 正義를 들었다.⁵⁰⁾

다르게 표현하여 그는 영웅과 위인의 특징으로 “着實”을 들고 영웅인 나폴레옹의 예를 들면서 그의 평생은 “老成人의 着實과 少年의 努力의 連續”이라 하였다.⁵¹⁾ 바로 이러한 것이 조선의 전통으로 상정되던 성리학적 윤리에서 벗어나 지행합일을 강조하는 양명학으로 윤리의 기초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한다. 《少年》의 입장에서는 이에 따라 誠과 力을 강조하는데,⁵²⁾ 이것을 양명학의 본질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소년인(최남선)이 “先輩들이 우리를 눈썹그리지 말라...우리들의 輕率하다할 謀反을 恕諒하지어다. 모든 主權이 다 우리들 손에 옮겨와 있음을 생각하지어다”라고 한 바와 같이 이것은 조선시대 선인들에 대한 반역인 것인데 이 반역은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한 세대의 윤리적 강령으로 필요한 것이었다.⁵³⁾

실로 단군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과 행동윤리로서의 양명학은 《少年》시기 최남선이 도달한 지점이었다. 大宗教⁵⁴⁾와 연계되어 활동하는 박은식, 신채호 등이

47) 《少年》, 第參年 第五卷, 9쪽.

48) 《少年》, 第參年 第五卷, 10쪽.

49) 《少年》, 第參年 第五卷, 15쪽.

50) 《少年》, 第參年 第五卷, 15쪽. 그는 이를 “新大韓의 十德”이라하여 동호의 표지를 장식하였다.

51) 《少年》, 第參年 第五卷, 16쪽.

52) 《少年》, 第肆年 第二卷, 9쪽.

53) 《少年》, 第肆年, 第二卷, 10쪽. 최남선이 18~21세 사이에 거의 홀로 편집 출간한 《少年》에서 나타난 사상은 일관된 논리적 연계를 보여주기보다는 다양한 사상을 절충하는 모습이 강하게 드러난다. 수용하고자 하는 가치로 그가 강조하게 되는 “착실”이 양명학이 강조하는 지행합일과 잘 부합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양명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 그러한 결론을 얻은 것은 아니다. 단지 양명학이 주자학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가 받아들이기 좋은 자원이 된 것이다. 그렇기에 《少年》의 마지막 호인 第肆年 第二卷은 양명학을 주장하면서 박은식의 「王陽明先生實記」를 전제하는 것으로 전 지면을 채우고 있다.

《少年》지의 필자로 등장하며 최남선 역시 《少年》지에 단군관계 기사를 밀도 높게 게재하는 것을 보면 최남선 역시 대중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⁵⁵⁾

IV. 20세기 초 소년의 정체성

최남선이 애를 쓴 것 중의 하나는 대한의 비참한 현실로 인한 당시의 부정적 정체성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체성은 서구·일본 문명의 우위로 인하여 생겨나는 거울상적 모방 욕구와 쌍을 이루어 나타난다. 대한제국이 쇠락하는 국가였던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었으며 소년이 발간되던 시기는 합병을 전후한 시기였기 때문에 대한제국에 대하여 그리고 그 국민인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른 바 애국계몽운동 기간 중에 발간된 많은 잡지들 그리고 위인전, 영웅전은 바로 이같은 부정적인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한 애국적 국민주의 운동이었던 바, 최남선이 바라는 것 역시 그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잡지 《少年》의 기사는 그에 해당하는 기사들로 구성되었다. 잡지는 몇 특징적인 연재물들을 가지고 있었다. 「少年史傳」은 역사상 위대한 뜻을 품고 그 뜻을 성취한 소년—위인의 행적을 소개하는 일종의 영웅전이였다. 이 난을 통하여 러시아의 페터대제,⁵⁶⁾ 나폴레옹,⁵⁷⁾ 에디슨,⁵⁸⁾ 가리발디,⁵⁹⁾ 톨스토이,⁶⁰⁾ 카부르⁶¹⁾

54) 大宗教는 1909년 정월 15일(음력) 증광되었다. 『大宗教重光六十年史』(大宗教總本司, 1971), 80쪽.

55) 최남선은 第二年 第十卷에 단군절 노래를 크게 게재한다. 第參年 第二卷(1~16쪽)에는 「太白詩集」을 게재하여 단군 “大皇祖”를 칭송하고 있다. 第參年 第肆卷(3~4쪽)에 다시 ‘太白의 님을 離別함’이라는 시를 게재한다. 第參年 第五卷의 「國民思行的 標準」은 단군의 정신을 찬양하기 위한 글이다. 第參年 第八卷에는 ‘大朝鮮精神’이라는 시와 함께 신채호의 「國史私論」을 게재하고 마지막 호인 4/2에는 왕학을 주창하며 박은식의 「王陽明先生實記」를 게재하게 된다. 「海上大韓史」역시 단군사상으로 귀착된다. 단군사상이 최남선에게 얼마나 중요하였던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56) 《少年》, 第二年 第一卷 및 第二年 第二卷에 게재.

57) 《少年》, 第一年 第二卷부터 게재되기 시작하여 第參年 第六卷에 이르기까지 10회 게재되었으나 속편이 미완성되었다.

58) 《少年》, 第二年 第二卷.

59) 《少年》, 第二年 第肆卷.

등이 소개되었다. 우리의 민족적 영웅이나 지사로는 이순신,⁶²⁾ 을지문덕,⁶³⁾ 민영환⁶⁴⁾ 등이 소개되었다.

그렇기에 소년에 게재된 기사들 중 많은 것들이 서구문명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한편에서는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되새기고 그것을 미래를 위한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자하였던 것이다. 이제 그러한 기사들 중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그것은 최남선이 연재한 「快少年世界周遊時報」와 「海上大韓史」라는 연재기사이다.⁶⁵⁾

첫 글에서 최동건일은 고대에 우리 민족은 “興國民”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나약하여졌으며 그 이유는 “旅行誠이 減退하여 冒險과 經難을 시려하게된 까닭”이라 생각한다.⁶⁶⁾ 그는 지리상에 배우던 모든 대륙을 돌아다니면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남대문정거장에서 여행을 시작한다. 제2보에서는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대한의 한심한 현실이다. 개성으로 향하는 중 수려한 강산이 눈에 들어오지만 그의 생각에 떠오르는 것은 경부철도가의 일절 “너는 뉘 車를 타고 안 단들 아나냐”이다.⁶⁷⁾ 그리하여 그는 “天下에 不幸한 國民이 만호리다 그러나 고은 物色을 보고 눈에 갖겁디못하도록 된 處地에 잇난 人民에 디날 者ㅣ 또 잇사오릿가”하며 한탄한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미래가 소년에 달려있다고 위로하며 새 기운을 얻어 개성에서 하차한다.⁶⁸⁾

60) 《少年》, 第二年 第六卷에 勞動力作論을 중심으로 하여 소개되고 第參年第九卷에는 톨스토이 下世記念號로 발간되었다.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소개되었음을 보아 톨스토이에 대한 최남선의 깊은 존경심을 알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남선의 애국주의·문명진실과 톨스토이의 보편주의·문명비판의 모순은 최남선의 조심스러운 선택에도 불구하고 봉합되지 못한채 남아있게 된다. 권 보드래, 「『소년』과 톨스토이 번역」, 『한국근대문학연구』, 6권 2호(2005. 10), 63-72쪽.

61) 《少年》, 第參年 第八卷.

62) 「李忠武軼事」, 《少年》, 第二年 第十卷.

63) 「薩水戰記」라는 제목으로 緒言이 《少年》, 第一年 第一卷, 69~71쪽에 게재되었으나 그 속편이 예고되었으나 이행되지 못하였다.

64) 《少年》, 第二年 第一卷에 「閔忠正公小傳」으로 사진과 함께 소개되었다.

65) 창간호에서부터 연재를 시작하였다. 이 기사는 최남선이 15세 소년 최동건일이라는 것을 가정하여 조선의 각지를 여행하면서 국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또한 소년의 중요성을 알린 것으로 최남선의 역사관 탐색이 가능한 것이다.

66) 《少年》, 第一年 第一卷, 75쪽.

67) 《少年》, 第一年 第二卷, 9쪽.

68) 《少年》, 第一年 第二卷, 10쪽.

제3보는 송도의 여행이다. 그는 고려의 역사를 읽으면 “매양 嘔逆남을 禁치못”한다고 하였다.⁶⁹⁾ 태조 이후 군주나 신하 중 제대로 된 사람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萬古 萬國史記中에 高麗史갓히 索莫한 感을 惹起할 者가 稀罕”하다는 것이다. 그가 고려사를 비판하는 것 중의 하나는 천문을 업수히 여겨 天象家를 중인 대접하였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인재양성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정치투쟁하는 사람만을 양성했다는 것이다.⁷⁰⁾ 이어서 선죽교에서 정몽주의 죽음을 떠올리는 바, 그의 백성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계획과 희생은 칭송하나 두문동 현인들의 처사는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고려를 위하여 싸우든지 아니면 실력을 양성하여 부흥을 시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⁷¹⁾ 남대문 범종을 보고서는 우리 국민들이 고적보존을 소홀히 하여 사학, 역사적 지리학, 고고학 연구가 극난하다는 점을 한탄한다.⁷²⁾

제4보 역시 개성 사정이다. 고적보존에 대한 것인데 만월대의 지대석이 의외로 잘 보존되어 있는 바 그 이유가 미신을 이용하여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며 아울러 도굴꾼들이 왕릉을 도굴하여 문화재를 팔아먹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긴다.⁷³⁾ 제5보는 개성에서 의주행 기차에서의 잡상이다.⁷⁴⁾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기사는 여기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실제 여행담이었다고 생각되는 이 연재기사에서 최남선은 대체로 중세의 역사에 대하여 대단히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러한 관점이 조선의 역사에 대한 부정적 정체성의 한 근거를 제공하였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快少年世界周遊時報」가 주로 고려와 조선시대에 대한 최남선의 비판적인 감상을 담은 글이라고 한다면 「海上大韓史」는 한반도의 역사를 세계사와 비교 고찰한 것으로 아주 위대한 역사를 강조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海上大韓史」는 창간호부터 야심적으로 계획한 기사이다. 기사의 목적은 “少年의 海事思想을 鼓發하기 爲하여 編述”한 것이다. 그는 이것을 사론으로 간주하였으며 바로 그 때문에 한국사

69) 《少年》, 第二年 第一卷, 36쪽.

70) 《少年》, 第二年 第一卷, 36-39쪽.

71) 《少年》, 第二年 第二卷, 18-20쪽.

72) 《少年》, 第二年 第參卷, 27쪽.

73) 《少年》, 第二年 第十卷, 32-38쪽.

74) 《少年》, 第參年 第參卷, 53-55쪽.

에 대한 그의 생각이 많이 드러나 있기에 그의 역사관을 살피기에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된다. 이를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본 최남선의 정체성을 확인하여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론을 통하여 그의 관심은 줄곧 ‘한민족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글에서 그는 우리국민이 반도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상로로 교통하기보다는 육로로 교통하기를 즐겨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는 “三面 環海國 少年”이므로 해상사를 서술하겠다는 것을 밝힌다.⁷⁵⁾

제2편에서 그는 한반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천혜를 받은 곳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한반도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호랑이가 뒷발을 모으고 유라시아대륙을 향하여 돌진하는 기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⁷⁶⁾ 제3편에서부터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분석한다. 일본은 아메리카로 많은 이민을 보내다가 아메리카의 제한에 의하여 그 길이 막히자 한만경영으로 방향을 틀어 한반도에 식민을 시작하였고 아메리카는 이민을 통하여 계속 발전하면서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질 것이라 하였다.⁷⁷⁾ 4편은 지나제국의 정황을 소개하며 이 나라의 병폐로 “自尊自大하난것과 是古非今하난것”을 들었다.⁷⁸⁾ 5편은 만주를 언급하면서 이곳이 대발해국의 영토이었던 것과 이 고지에 다시 이주민들이 들어가 “外新大韓”을 건설하고 있다 하였다.⁷⁹⁾

6~9편은 한반도의 인문적 환경을 논한다. 한반도는 반도이기에 해륙문화를 아울러 융화하고 전파하며 성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⁸⁰⁾ 10편부터는 반도는 문화의 기원지라고 하였다.⁸¹⁾ 그리하여 결국 “文化的 대부분은 半島에 이터났고 또 文化的 傳導와 調和와 集大成과 開拓은 모다 半島의 天職”이라는 것이다.⁸²⁾ 11편은 이같은 반도의 특수한 역할론을 발전시켜 한반도가 얼마나 위대한 공적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려 하였다. 단군은 이집트, 지나, 인도 밖에는 야만인

75) 《少年》, 第一年 第一卷, 30~36쪽.

76) 《少年》, 第一年 第二卷, 6쪽.

77) 《少年》, 第二年 第一卷, 9~19쪽.

78) 《少年》, 第二年 第二卷, 11~15쪽.

79) 《少年》, 第二年 第參卷, 13~17쪽.

80) 《少年》 第二年 第六卷, 22~24쪽; 第二年 第七卷, 15~18쪽; 第二年 第八卷, 17~20쪽; 第二年 第九卷, 41~43쪽.

81) 《少年》, 第二年 第十卷, 39~43쪽.

82) 《少年》, 第二年 第十卷, 42쪽.

상황에서 국가를 건설할 만큼 문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세운 뒤에 천여년 동안 상하가 잘 지내온 만큼 국민으로 필요한 성격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반도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국을 건설하고 또 고구려, 발해를 건설할 정도였다는 것이다.⁸³⁾ 12편은 이어서 “우리 民族”이 이론 공적을 열거한다. 종교상으로 “世界人類 중 가장 먼저 一神敎의 眞理를 靈覺”하였다. 정치상으로는 “대황조” 시기부터 “民을 主하고 官을 奴하얏스며” 백제건국을 예로 들어 세계에서 “共和制를 처음으로 開創” 하였다고 하였다. 외교상으로는 4천년 전부터 이미 “번듯한 國際關係”를 이루었다. 무역상으로는 페니키아인에 앞서서 황해와 발해를 통하여 무역을 하고 공예상으로는 건축, 침선, 직방으로 “倭人을 文化로 導”하였다.⁸⁴⁾ 최남선은 이후로도 우리 민족의 문화가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계속 저술하려 하였으나 12편을 끝으로 하여 기사는 더 이상 게재되지 못한다.

최남선이 암울한 민족적 현실을 극복하도록 자민족에 대한 긍지를 고취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로 고안한 것은 긍정적 이미지의 형성이었다. 이것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며 바로 그런 민족적 자아상을 여러 방법을 통하여 안출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국토에 대한 이미지이다. 일본의 지리학자 小藤은 한반도를 형상하여 토끼가 중국대륙을 향하여 뛰어가는 모습 같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최남선은 그 스스로 한반도의 형상을 호랑이가 발을 들고 아시아대륙을 향하여 생기 있게 뛰는 모습으로 묘사하였다.⁸⁵⁾ 그리하여 스스로 그 의미를 지적하였으니 “우리 進取的 膨脹的 少年韓半島의 無限한 發展과 아울러 生旺한 元氣의 無量한 것을 남더디업시 너어그렸스니 또한 우리것 혼少年의 보난데 얼마큼 마음에 단단한 생각을 들만한디라”고 하였다.⁸⁶⁾ 최남선의 인출은 당시의 신문 《皇城報》에서 극찬을 받았다. 그리하여 동지는 같은 취지로 호응하였던 것이다.

今日은 少年大韓이 될 機會라. 惟我全國少年界는 此地圖를 觀念하야 國性을 培養하며 國粹를 扶植하고 仁義文武의 德으로 雄勇強猛의 材를 成就하야 舉

83) 《少年》, 第參年 第參卷, 46~48쪽.

84) 《少年》, 第參年 第六卷, 37~42쪽.

85) 《少年》, 第一年 第一卷, 67쪽.

86) 《少年》, 第一年 第一卷, 67~68쪽.

皆桓桓虎士와 矯矯虎士이 되어 我少年大韓으로 虎아곰 虎視天下하느 威風을 振動케 할지어다⁸⁷⁾

《少年》은 또한 소년들에게 호연지기를 불러일으키는 목적으로 북극과 남극 지역에 대한 영웅적인 탐험기를 게재하였다.⁸⁸⁾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서 진취적 모험적 정신을 고취시키려는 것이었다. 바로 이같은 취지에서 외국의 진취적인 사례들을 같이 소개하였다.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영국의 국민정신을 배울 것을 주장한다. 영국의 식민지는 “國民의 冒險進取의 勇力”으로 얻은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의 위대한 정신을 잘 배워야 하는 바 영국인은 그 마음과 일이 浮虛—躁急—輕妄이 없이 眞實—堅確—深重하였기에 이를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⁸⁹⁾

소년은 대한의 소년들이 가져야 할 정신을 영웅전 이외에도 「少年訓」 같은 고정난을 통하여 고취시켰다. 이는 영웅, 위인들의 어록 같은 것으로 단순명료하게 소년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어록으로 신대한 소년의 좌우명을 삼고자 한 것이다. 그 내용은 주로 분투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 학문을 고취하는 것, 노동을 강조하는 것, 인내를 강조하는 것 같은 것들이었다.⁹⁰⁾

《少年》이 강조한 것 중의 하나는 근대적인 학문에 대한 관심과 근대적인 모랄 고취에 있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수학, 생물학, 과학기술 등을 소개하는 기사를 종종 실었다. 근대적 지식의 보급이라는 차원에서 이과, 한문, 지리, 수학 등을 소개하였고 특히 지리에 역점을 두어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와 풍속을 소개하였다. 창간호부터 마련된 「鳳吉伊地理工夫」가 그 대표적인 것이었고 그 외에도 지리적 관심을 가지고 「海上大韓史」같은 연재물이 실리게 되었다. 또한 「少年文壇」

87) 《少年》, 第一年 第二卷, 16쪽.

88) 「歡迎博士」, 《少年》, 第一年 第二卷, 「해된博士의 略歷」, 《少年》, 第二年 第一卷, 「北極探査事跡」, 《少年》, 第二年 第二卷·參卷·肆卷, 「南極探査의 大成功」, 《少年》, 第二年 第六卷.

89) 「世界的 智識」, 《少年》, 第二年 第六卷, 62, 64쪽.

90) 분투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少年》 第二年 第參卷 표지의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의 어록을 비롯하여 「新時代青年의 新呼吸」난을 통해 워싱턴의 좌우명을 시작으로 하여(第二年 第參卷) 용기를 강조하고(第二年 第九卷) 영웅의식을(第二年 第二卷) 고취시켰다. 또 학문고취(第二年 第肆卷, 第二年 第六卷二), 노동강조(第二年 第七卷, 第二年 第八卷) 수양과 인내를 요구하는 내용이 강조되었다(第參年 第參卷).

같은 난을 통하여 창작을 장려하기도 하였고 그 외에도 종종 최남선은 자신의 문학작품을 실었다. 「巨人國漂流記」와 「로빈슨 無人絶島漂流記」는 당대 유행하던 작품을 소개한 것이었고 「이슴의 이약」역시 소년들에게 적합한 교훈을 주는 문학작품 소개였다. 전반적으로 보아 소년을 교육시키고 계몽시키고 애국적이고 근대적인 정신으로 무장시키려는 것이었다. 이 같은 목적 때문에 교훈적인 좌우명이 많이 게재되었다.⁹¹⁾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보아 최남선에 의한 대한의 소년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야 하는가? 그에 의하면 몰락한 대한의 현실과 찬란한 역사를 가진 민족의 고대사가 대비된다. 또한 현재 대한 소년의 처지는 한심하지만 찬란한 역사의 예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다시금 영광을 찾을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 영광을 찾을 주인공은 바로 지금의 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최남선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소년이란 과거와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부재로만 존재한다. 결국 「海上大韓史」에서 보듯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少年》은 소년들을 열려진 바다로 향하게 하는 대신 위대한 고대사로 가득한 한반도에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기사들을 통하여 결국 강조되는 것은 애국적 정신의 고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⁹²⁾ 국가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정신, 국가를 위하여 인내하고 노력하는 정신, 국가를 위하여力行하는 정신 같은 것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년은 국민주의적 정신으로 가득 찬 잡지였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소년은 노골적인 정치투쟁을 기치로 내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⁹³⁾ 통감부·총독부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았다. 《少年》은 1910년 2월 27일 일요일 정오에 원각사에

91) 福澤諭吉의 處世要領(第二年 第二卷), 외싱턴 좌우명(第二年 第參卷), 프랭클린(第二年 第肆卷), 페스탈로찌의 사랑(第二年 第七卷), 헬렌켈러(第三年 第五卷) 링컨(第三年 第一卷) 에디슨(第二年 第二卷) 같은 것들이 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2) 최남선의 국민으로부터 민족으로의 초점의 이동에 대하여는 최현식, 「신대한과 ‘대조선’의 사이(1)」, 『현대문학의 연구』, 30집(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93) 최남선은 청년학우회의 설립위원회 회장 윤치호가 교회사무로 미국으로 떠나자 회장 박중화 총무 최남선으로 선임되어 회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少年》은 청년학우회의 기관지 역할을 하였다(《少年》, 第參年 第參卷, 70쪽). 또 같은 해 3월 설립위원회 漢城聯會에서 집행부의 婦論課長으로도 선임되었다(《少年》, 第參年 第肆卷, 64쪽). 주지하다시피 청년학우회는 비밀단체 신민회의 표현단체였다.

서 “소년제일차강연회”를 개최하여 하였으나 당국에 의하여 금지처분을 받아 회중이 해산하게 된 일도 있었다.⁹⁴⁾ 잡지가 받았던 탄압은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1910년 8월에는 제3년 제8권이 발매금지처분을 받았고 1910년 12월에 해금되지만⁹⁵⁾ 1911년 1월에 다시 원고검열을 통하여 발행되지 못한다.⁹⁶⁾ 이어서 1911년 5월 제4년 제2권을 끝으로 발행정지처분을 받음으로 잡지는 그 생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⁹⁷⁾

《少年》이 발간되는 시기는 1908~1911의 시기이고 그 발행권수는 총 23권(실제 22권)에 해당되었다. 잡지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소년이라는 새로운 세대를 주조하고 그 세대를 역사의 주인으로 부각시켰다. 잡지가 의도하던 것은 근대적 정신을 통하여 국민정신을 쇄신함으로써 애국주의를 고취시키고 이를 통하여 국가가 힘을 가지고 독립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쇠약한 상태에서 국민들이 가지게 된 부정적 정체성을 극복하고 자기의 역사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하여 국가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새롭게 생겨난 희망을 토대로 무실행위의 새로운 국민을 주조하려는 것이었다. 바로 이 새로운 국민의 주역이 소년이었다. 셈이다.

소년은 한국의 근대 역사에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한다. 소년이 발간되던 시기는 한국사에서 통상 애국계몽운동이라고 불리는 시기에 존속하였다. 애국적이고 계몽적이었던 점에서 소년 역시 이 운동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소년은 새로운 세대를 주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새로운 세대는 다가올 시대를 위하여 단지 준비하고 훈련받는 세대가 아니고 그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전면에서 등장하여 국민역할을 하고 독립적 정신 혹은 반항적 정신으로 무장하여 전통에 입각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점은 소년을

94) 《少年》, 第參年 第參卷, 72쪽.

95) 이 사건에 대하여 《少年》은 발행인 최창선의 이름으로 1910년 8월 26일자 통감부경무총장의 명의를 “발매반포를 금지하고 이를 압수한다”는 공문서 그리고 동년 12월 7일자 “발행정지를 해제한다”는 공문서를 그대로 전재한다. 분명한 항의의 표시인 것이다. 「愛護列位에게 謹告함」, 《少年》, 第參年 第九卷.

96) 이 사건에 대하여 최남선은 극히 자중하는 표현을 하였다. 스스로를 “사리에 어두은 少年인 까닭에 그러한 것”이라 하여 자괴감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검열당국에 대하여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신 것들을 배웠소” 라고 하는 것을 볼 때(「讀者僉尊귀」, 第肆年 第二卷), 이는 완곡한 항의였다.

97) 白淳在, 「少年誌 解題」, 『少年(1)』(原文社, 1977).

단지 미성숙한 그리하여 예비성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던 세대의식을 전복하여 소년이라는 세대를 그 자체로 인정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세대의 독자적 인식과 그에 따른 사회적 운동은 그 뒤에 나타난 어린이, 신여성 등 새롭게 새로운 범주의 세대들이 등장하고 이들이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는 데에서 볼 수 있듯 근대적인 세대감각의 선구자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잡지 소년은 개인주의적이고 근대적인 윤리감각을 형성한 것이고 한국의 소년들이 하나의 나름대로 구별된 세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이다.

V. 맺음말

동아시아에서 근대문명의 수용과 확산이 시대적 정신으로 간주되던 20세기 초에 대한제국은 국가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있었다. 급진적인 개혁을 통하여 국가를 쇄신하고 애국적 국민을 속히 양성하여 근대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당대 지식인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최남선이 창간한 근대잡지 《少年》은 이 같은 과제에 부응하여 젊은이들을 교육 계몽하여 국민정신으로 충일하게 하고자 하였다. 최남선은 일본유학을 통하여 관찰한 서구 및 일본 근대문명을 통하여 대한제국이 나가야 할 미래를 보았다. 그리고 이 미래에 활약할 주역으로 소년에 주목하였다.

소년은 러일전쟁 무렵 유행하기 시작한 용어이며 국민, 희망찬 미래, 근대적 문명이라는 새로운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호가 되었다. 최남선은 이 기호를 수용하여 그가 창간한 잡지의 제목으로 삼았다. 애국계몽운동 시기 수많은 학회지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少年》이 주목받는 이유는 몇 가지 점으로 요약된다. 첫째, 이 잡지는 과감하게 한문투 문어체를 포기하고 일상어를 바탕으로 하는 문체를 사용하였다. 그럼으로써 한글이라는 일상어를 사용하는 국민을 위한 본격적인 잡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둘째, 소년이라는 용어를 일반화시키고 여기에 혁신적이고 근대적인 의미를 부가함으로써 젊은이로서의 소년이 특별한 사회적 관심을 받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셋째, 《少年》을 통하여 근대적 문명을 과감하게 소개하고 애국적 정신을 고취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역사를 환기시켜 현실의 부

정적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진취적 능력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젊은 세대의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少年》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20세기 초 소년의 정체성을 새로운 방향에서 구조화하였다. 몰락하는 조선의 정신이었던 유교윤리 대신 정성과 실행을 강조한 양 명확이 윤리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 정신이 大皇祖로서의 단군의 정신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주어진 우리의 지리적 조건은 몰락이라기보다는 비약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설득하려 하였다. 최남선이 스펀지처럼 흡수한 모든 서양과 일본의 근대문명은 이같은 국민정신 속에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이같이 하여 《少年》은 국민주의를 통한 국민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다른 잡지들보다도 그 내용을 보다 국민적으로 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평민적이며 젊은 세대의 반란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잡지가 취한 방향은 선진적이었으며 이후에 전개될 시대적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少年》에 의하여 표상된 소년은 존재의 현실보다는 당위를 나타내었다. 그것은 서구나 일본 같은 문명국으로서의 타자를 거울상으로 받아들이며 그를 닮으려는 욕망의 불가피한 귀결이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를 우리는 하나 지적할 수 있다. 국민형성이라는 《少年》의 기획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목적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정작 소년의 세대로서의 독자성과 개성 발휘의 측면은 간과된 측면이 있다. 모호하게 아동·소년·청년의 구분이 이루어지던 시기의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결국 《少年》지의 소년이란 1920년대 이후의 어린이를 의미하기 보다는 청년에 근접하는 연령층이었으며 보다 정확히는 오늘날의 청소년에 가까운 연령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소년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모호함에서 어린이라는 세대가 분명한 모습으로 독립하는 것은 1920년대를 기다려야만 하였다.

참고문헌

『少年』(1908~1911). 서울: 原文社, 1977.

권보드레, 『『소년』과 톨스토이 번역』. 『한국근대문학연구』 6권 2호, 2005. 10, 63~95쪽.

김정희, 『한국소년운동사연구』. 성신여대박사학위논문, 1992.

大宗教總本司(편), 『大宗教重光六十年史』. 서울: 大宗教總本司, 1971.

梅家玲, 『發現少年, 想像中國: 梁啓超 <少年中國說>의 現代性. 啓蒙論述與國族想像』. 『漢學研究』 第19卷 第1期, 2001. 6.

박지영, 『방정환의 ‘친사동심주의’의 본질』. 『대동문화연구』 51집, 2005, 143~181쪽.

白淳在, 『少年誌 解題』. 『少年』(1). 서울: 原文社, 1977.

소래섭, 『《少年》誌에 나타난 ‘소년’의 의미와 ‘아동’의 발견』. 『한국학보』 28권 4호, 2002, 103~126쪽.

송병기(편), 『統監府法令資料集(中)』. 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3.

신지연, 『『소년』의 문체연구』. 『민족문화연구』 42집, 고대민족문화연구소, 2005, 177~213쪽.

양계초, 『教育政策私議』. 『大韓自強會月報』 第三號, 1907. 9.

유길준, 『西遊見聞』. 『兪吉濬全書(1)』. 서울: 일조각, 1971.

전성근, 『『국민의 빛』과 『소년』지에 나타난 <문화론>에 관한 고찰』. 『인문연구』 제50집, 영남대인문과학연구소, 2006, 113~145쪽.

전영표, 『육당 최남선의 출판행위와 《소년》지 연구』. 『출판잡지연구』 12권 1호, 출판문화학회, 2004, 5~21쪽.

정선태, 『번역과 근대 소설 문체의 발견』. 『대동문화연구』 48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73~97쪽.

조은숙, 『근대계몽담론과 ‘소년’의 표상』. 『어문논집』 46집, 민족어문학회, 2002, 213~247쪽.

최재목, 『최남선《少年》誌의 ‘新大韓의 少年’기획에 대하여』. 『日本文化研究』 제18집, 2006, 249~274쪽.

최현식, 『신대환과 ‘대조선’의 사이(1)』. 『현대문학의 연구』 30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131~170쪽.

학부편집국, 『新訂尋常小學(一)』. 1896. 2.

한기연·이계학·이길상(편), 『韓國教育史料集成: 개화기편(IV)』.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Ph. Ariès, *L'enfant et la vie familiale sous l'Ancien régime*. Paris: Edition du Seuil, 1973.

국문 요약

최남선에 의하여 잡지의 표제로 사용된 소년이라는 용어는 아동, 청년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근대적 변혁과 감각의 혁신에 관계되는 개념이었다.

소년은 러일전쟁 무렵 유행하기 시작한 용어이며 국민, 희망찬 미래, 근대적 문명이라는 새로운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호가 되었다. 최남선은 이 기호를 수용하여 그가 창간한 잡지의 제목으로 삼았다. 애국계몽운동 시기 수많은 학회지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少年》이 주목받는 이유는 몇 가지 점으로 요약된다. 첫째, 이 잡지는 과감하게 한문투 문어체를 포기하고 일상어를 바탕으로 하는 문체를 사용하였다. 둘째, 소년이라는 용어를 일반화시키고 여기에 혁신적이고 근대적인 의미를 부가함으로써 젊은이로서의 소년이 특별한 사회적 관심을 받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셋째, 《少年》을 통하여 근대적 문명을 과감하게 소개하고 애국적 정신을 고취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역사를 환기시켜 현실의 부정적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진취적 능력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다는 것이다.

《少年》은 20세기 초 소년의 정체성을 새로운 방향에서 주조하였다. 몰락하는 조선의 정신이었던 유교윤리 대신 정성과 실행을 강조한 양명학이 윤리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 정신이 大皇祖로서의 단군의 정신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근대문명은 이같은 국민정신 속에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이같이 하여 《少年》은 국민주의를 통한 국민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다른 잡지들보다도 그 내용을 보다 국민적으로 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평민적이며 젊은 세대의 반란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잡지가 취한 방향은 선진적이었으며 이후에 전개될 시대적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 투고일 : 2008. 7. 14.

● 심사완료일 : 2008. 8. 28.

● 주제어(keyword) : 소년(youth), 청년(young men), 아동(child), 단군(Dangun), 국민(nation).